

# 뒤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 캐릭터 의상연구

김지혜\* · 조우현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인하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드라마 안에서 의상은 시각적인 볼거리 (Spectacle)로 언어가 표현해 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할 수 있으며, 관객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무대 의상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Barbara & Cletus Anderson”의 Costume Design 과정을 바탕으로 연극 「노부인의 방문」을 시대와 배경에 적합한 캐릭터의상으로 디자인, 제시하고자 한다.

연극 「노부인의 방문」은 독일의 희극작가 Friedrich Durenmatt의 작품으로 그의 희곡론과 “그로테스크(grotesque)”라는 역설적인 묘사를 적절히 표현한 대표작이다. 깊은 시절 억울한 누명으로 마을을 떠난 주인공 짜하나시안(zachnassian)부인이 40년 후 복수를 위해 고향을 찾아오면서 그녀가 제시한 돈으로 “정의(正義)”실현이 쉽게 변절되는 시민들을 통해 “인간성의 모순”을 보여준다.

“Barbara and Cletus Anderson”은 전체적 이야기 구조에 따라 작품 성격을 판단하고 배경에 맞도록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realism과 인물의 특징만을 추상적으로 보여주는 stylization의 결정을 중요시 한다. 따라서 그의 내용에 의거하여 대본을 통한 작품 분석 후 연출가와 디자인팀이 추구하는 스타일을 창조하기 위해 시대, 공간적 배경에 충실한 realism으로 의상을 디자인하였다. 인물은 크게 정면인물과 반면인물로 나누어 각각의 캐릭터에 따른 form, color, textile을 선택하였다. 그 중 color는 scene tone을 먼저 배치하고 main color와 accent color, hue, value, chroma에 따라 어떠한 color가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나누어 보았다.

공동작업이라는 연극의 특징을 고려하여 무대, 조명 디자이너들과 함께 세트디자인의 형태나 색채 면에서 시각적인 요소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노부인의 방문」무대의상의 디자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실적 표현론(realism)에 충실하고자 2차 세계대전 이후인 시대적 배경과 몰락해가는 독일 쾰렌의 공간적 배경에 맞추어 전체 인물들의 의상을 독일복식인 Lederhosen과 Drindl로 구성하였다. main color 또한 독일 복식에 바탕이 되는 검정색, 갈색, 회색 올리브로 정하였고 accent color는 정면인물 짜하나시안 부인에게 접목시켜 노여움, 복수의 의미가 담긴 dark red로서 강한 contrast를 이루었다. 짜하나시안 부인의 의상은 뒤렌마트 희곡의 특징인 “그로테스크”함을 접목하여 괴상하고 어설픈, 희귀한 우아스러움이 표현 되도록 과장된 곡선을 사용하였고 화려한 악세사리와 여러 느낌의 레이스, 조명에 반응이 강한 벨벳, 세틴 소재로 장식하였다. 반면 인물인 시장, 교사, 수녀 등 여러 시민들은 각자의 개성보다 하나의 집단으로 통일성을 강조하였다. 극의 main color가 시민들의 의상에 나타나도록 배치하였고 몰락한 마을 시민 느낌을 살리기 위해 patchwork로 Point를 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극의 배경 및 시대 복식에 대한 지식, 색상, 소재, 조명, 무대 세트 등에 따라 디자인적인 측면에 많은 변화를 보이는 무대의상은 연극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각적인 요소를 위한 예술적인 심미안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어졌다.